

여름철 재해 대비 농업·축산 분야 종합대책 가동

전주시, 집중호우·태풍·폭염 등 복합 기후 재난 대비 선제 대응 체계 구축... 농업재해 자체 상황반 운영

전주시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폭염 등 복합적 기후 재난에 대비해 농업·축산 분야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섰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는 여름철 복합 기후 재난에 대비해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별도로 농업재해 자체 상황반을 운영하며 기상 상황에 따른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상특보 발효 시 현장 대응팀을 즉시 투입하고, 한국농어촌공사·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농협 등 유관기관과 재해 정보를 공유하며 현장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정비를 통해 구조적 취약 요인 해소에 집중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주시역 저수지·소류지·배수장 등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사전점검과 여수로 퇴적물 제거 등 기능 정상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만지재 일원 준설과 사동제 보수·보강 등 근본적인 정비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시는 올여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폭염에 취약한 고령 농업인을 중심으로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초부터 농업인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과 농작업 안전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시기에 맞춰 현장 예방과 기술 지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향후 폭염특보 발효 시에는 현장 기술 지도와 안전 문자 발송을 통해 △낮시간대(12~17시) 농작업 자제 △충분한 수분 섭취 △시간마다 휴식 △밀폐공간 작업 시 환기 실시 △나홀로 작업 금지 등 폭염 대응 행동 요령을 집중 안내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시는 축·수산 분야에서도 침수 우려 지역 등 재해 취약 농가에 취약한 고령 농업인을 중심으로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점검반을 운영한다.

또, 환풍기·미스트 등 온도 저감 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등을 지원해 가축 폐사

예방과 적정 사육환경 유지에 힘을 기울인다.

시는 앞으로도 여름철 재해에 대비해 농업·축산 분야 예방과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지원을 통해 농가 경영 안정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강세권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와 폭염이 동시에 찾아오는 복합 재난이 일상화되고 있다"면서 "올해는 단순 대응을 넘어 기반 시설 정비와 상황반 운영 등 사전 대비를 강화한 만큼 농업인과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은 18일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에 지역 내 주거 취약가구의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한 주거생활 안정 지원 후원금을 전달했다.

주거 취약가구 주거 안정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 안정 지원 후원금 전달

전북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송상재)은 18일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센터장 오은주)에 지역 내 주거 취약가구의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한 주거생활 안정 지원 후원금을 전달했다.

전북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은 노동 존중 사회 실현과 전북자치도 공무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 2006년 9월 설립 신고된 단체로, 현재 8대 송상재 노조위원장을 필두로 '더욱 특별한 노동조합, 다 시 함께'의 구호로 1800여 명의 조합원과 함께하고 있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 160만 원은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의 '주거생활 유지 지원사업'을 통해 사용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후원금은 기초생활수

급 가구를 비롯한 행정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체납된 임대료 및 주거 관리비 △주거 상향 이사회 △노후화되거나 고장난 주거생활 필수가전 지원 등에 사용된다.

송상재 위원장은 "이웃을 위한 따뜻한 마음과 활동이 더 특별한 전북을 만든다"면서 "나눔과 동참 문화가 지역사회로 확산할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 공무원노동조합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시 주거복지센터가 운영하는 '주거생활 유지지원 사업'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신청은 전화(063-281-0160~1)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희성 기자

전주푸드 직매장, 10년 만에 매출 3배 성장

올해 매출 60억원 달성 도전... 지역 농업·시민 먹거리 잇는 대표 플랫폼으로 성장

전주시 출연기관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전주푸드 직매장이 지역 농업인과 시민을 연결하는 대표 로컬푸드 유통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주시는 전주지역 370여 농가가 참여 중인 전주푸드 직매장이 10년 만에 매출 3배 성장을 기록하며, 올해 매출 60억 원 달성에 도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전주푸드 직매장은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

는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며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기여해 왔다.

전주푸드 직매장은 지난 2016년 연간 매출 20억 원 수준에서 지난해 59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올해 누적 매출은 25억7000만 원, 누적 이용객은 11만여 명을 기록하며 올해 목표 달성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전주푸드 직매장에는 현재 370여 농

가·업체가 직매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과 가공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함으로써 유통단계를 줄이고 안정적인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시는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안전성 관리에 힘쓰고 있다. 구체적인 정기적인 잔류농약 검사로 통해 품질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출하 제한과 퇴출 조치 등 엄격한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전주푸드 직매장은 기획 생

산 체계를 기반으로 연중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에 나서는 한편, 계절별 특화 행사와 소비 촉진 행사, 시민 참여 프로그램 등을 확대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도 전주푸드 직매장을 중심으로 지역 농산물 소비를 확대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강세권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전주푸드 직매장은 지역 농업인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시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지역 먹거리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다"면서 "올해도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소비 활성화를 통해 지역 농업과 시민이 함께 상생하는 전주푸드 직매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민주당 전주시의회 원내대표에 김성규 당선인

"오직 시민만 바라보는 민주당 전주시의회가 되도록 할 것"

김성규(호자 2·3·4동·사진) 전주시의원 당선인이 제13대 전주시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게 됐다.

민주당 소속 전주시의회 당선인들은 18일 오전 의회 5층 회의실에서 단독 추대된 김 당선인을 신임 원내대표로 결정했다.

내달 1일 개원하는 13대 전주시의회는 전체 의원 36명 중 26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신임 김 대표는 제12대 전주시의회 후반기 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원내대표 임기는 내달 1일부터 2년 간이다.

김 대표는 "제13대 전주시의회 전반기 원내대표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의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면서 "더욱 단합해서 민생을 살피는 전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첫마중길여행자도서관 여행 작가 초청 강연 참여하세요"

전주시는 19일부터 전주시립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오는 7월 첫마중길여행자도서관에서 진행되는 여행 작가 초청 강연 프로그램에 참여할 시민들의 신청을 받는다.

첫마중길여행자도서관의 7월 여행 작가 초청 강연은 △스페인책방 예비 대표의 '스페인여행가 추천하는 스페인여행' (7월 10일) △아이와 떠나는 한나절 하루 하룻밤 감성 여행'의 저자인 권다현 작가의 '아이랑 여행하기' (7월 25일)가 예정돼 있다.

해당 프로그램들은 각각 강연일 1달 전부터 도서관 누리집(lib.jonju.go.kr)과 전주시 특성화도서관 인스타그램을 통해 안내될 예정으로,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3주 전부터 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선착순 접수하면 된다.

이영섭 전주시 도서관생생학습본부장은 "여름휴가를 맞아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여행의 매력을 알릴 작가 초청 강연을 준비했다"면서 "앞으로도 여행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강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농업 분야 실태조사 본격 추진

전주시는 농업 분야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건전한 농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농업법인과 농지, 하천 및 계곡 주변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농지 이용 질서 확립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 정책에 발맞춰 농업법인의 적정 운영 여부와 농지 이용 실태를 점검하고, 하천과 계곡 주변의 불법점용시설을 정비해 농업·환경 분야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먼저, 시는 지난달까지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완료한 상태로, 이 조사를 통해 법인 설립 요건과 정관상 사업 범위 준수 여부, 1년 이상 미운영 여부 등 관련 법령 준수사항을 확인했다.

이후 시는 부동산 매매·임대 등 사업 범위를 벗어난 부동산업 영위 의심

법인에 대해서는 농지의 투기적·편법적 소유 여부 등을 포함해 정밀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이달부터 농지 전수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농지의 소유관계와 실제 경작 여부 △시설 설치 및 전용 여부 △휴경 여부 등으로, 시는 농업 경영 목적 외 농지 이용과 불법 점용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해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보호하고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하천과 계곡 및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구거 내 불법 경작, 가설건축물 설치, 컨테이너 및 물건 적치 등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공각

내아